

다시 돌아보는 8·15 해방의 의미와 그 현재성

유임하 | 문학평론가

우리에게 해방은 감격적인 역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시간이기도 하다. 그 이데올로기의 각축과 반목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 기나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는 곤혹스러운 문제이지만 오늘의 이 시점에 남북이 소모적인 적대성을 벗어 던지고 상생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 모로 반가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매년 8월 15일이 다가오면 일제의 만행과 학살에 대한 문건과 증언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쉴새없이 고개를 내민다. 이들 보도는 일제의 수탈과 거기에 저항해온 빛나는 민족의 정체성을 재규정 하려는 의욕을 담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혀 보면, 민족 정체성에 대한 식민지의 기억을 호명하는 모습은 우리 앞에 등장하는 국가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의례는 국가 영웅을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지나간 시대에 대한 기념비를 새로 세우는 작업이다. 그 기념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공공 기억을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가를 빛내고 자기를 던져 민족을 구하고자 한 이들과 적의 편에 가담하여 민족을 더럽힌 이들로 구성되는 이항 대립적인 구도가 어렵풋하게 깔려 있다. 안중근, 김구, 김좌진, 윤봉길 그 외에도 새로 발굴된 수많은 국가적 영웅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기억의 기념비에 부가된다. 더구나 올해에는 특히 사회주의자들도 건국훈장을 받으면서 민족의 기념비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민족의 외연을 넓힌 장면이 도드라진다. 미국의 여류작가 님 웨일스의 소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본명은 장지락, 1905~1938), 조선노동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1893~1986)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서훈이 추서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8·15 해방의 역사와 현실

국가보훈처는 3일, 지난 3·1절에 이어서 이 달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해 일제 강점기 3·1운동과 항일운동 등을 전개한 총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건국훈장 등 서훈을 추서 했다(김산에게 추서된 건국훈장은 애국장이

다). 역사란 '성찰된 시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 라는 해묵은 명제, 왕조와 민족의 역사라는 개념을 넘어서, 근래의 역사학적 명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를 더듬어 가는 '인간화의 과정' 을 추구하고 있다.

8·15 해방에 대한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를 인간의 온기 가득한 이야기로 구성하는 작업은 문학이 밝아온 이야기의 행로이기도 하다. 8·15 해방은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남' 이란 뜻을 반영한 말이다. 이 말은 '다시 찾은 빛' 이란 광복의 뜻보다는 좀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이까지 하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광복' 이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좀더 영속적인 시간을 인격화시키려는 의도가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해방은 감각적인 역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시간대이고 6·25 전쟁의 참화로 이어진 비극을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역사의 경험까지도 포괄한다. 해방 60년을 맞는 현실에서조차 일제의 수탈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식민지로부터 풀려나 세계 11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세계적으로는 드문 성취에 해당한다.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성대한 잔치는 날마다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외형과 내실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통계로 본 광복 60년' 은 이를 잘 말해주고도 남는다.

2004년 7월 1일 현재 남한의 총인구는 4,819만 명으로 1960년 2,501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9배 증가했고 무역 규모는 1962년 5억 달러에서 2003년 424배인 1,788억 달러로 증가했다. 통계 수치에서 보듯이 대한

민국이라는 국가의 규모는 해방의 높은 기대와 암울한 전망으로 가득했던 현실을 격세지감, 상전벽해의 현재로 바꾸어 놓았음을 실증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해방의 현재성, 곧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이 서로 만나 해방 6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마련된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방의 감격을 되뇌이는 것, 해방 이후의 발전상만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해 보인다.

우리 소설에 담긴 해방의 풍경

소설에 담긴 해방의 풍경은 우리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문학사에서는 '해방공간' 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남북한 체제가 등장하기 전 대단히 문체적인 시기로 취급해서 명명한 것이다. 이 시기는 세계 냉전구도가 남북한 사회에 관철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비극적인 씨앗이 뿌려지고 그 위기가 점차 증폭되던 때였다.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 계파간의 알력은 사회 전반에 걸친 좌우 이데올로기의 진영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이데올로기로 분할되어 정치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정치적 대립은 열악한 사회적 기반을 쌓을 여력조차 빼앗아 버렸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되풀이되는 보수, 진보 진영의 갈등과 분열은 그 연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해방공간에까지 연결된다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해방에 대한 역사의 감회를 격정적으로 토로한 작품들은 실로 적지 않다. 이태준의 『해방전후』가 은거와 낚시로 참행하며 일제의 강압을 감내하다가 건국의 역사적 과업에 뛰어드는 격정적인 내면을 그려냈다면, 지하련의 『도정』은 지식인 남편의 일제 말기에 착잡한 심사와 고뇌, 해방 이후의 정치 참여를 결행하는 모습을



〈2005 세계평화축전-DMZ를 넘어〉가 열리는 평화누리공원 모습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거기에서 채만식은 『민족의 죄인』에서 자신의 친일부역에 대한 윤리의 잣대 마련에 대한 적잖은 곤혹스러움을 차분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반면, 김동인의 자신의 친일을 변명한 『반역자』 『망국인기』로 자신의 문명을 스스로 먹칠했고, 이광수 역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친일부역을 '민족을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또한, 염상섭은 장춘에서 경성에 이르는 도정에서 해방 직후 북한 사회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화를 바탕으로 해방 삼부작 『해방』 『삼팔선』 『재회』를 집필했다. 이들 연작에서 염상섭은 '해방'과 함께 밀려든 귀국 전제민들의 물결과 북한사회의 혼돈, 식민 유제를 척결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행태에서 탈식민적 광풍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이념의 난무, 정치적 혼돈이 우려스럽지만 그는 그것이 과도적인 현실이라고 느긋하게 바라본다. 해방기에는 징용에 끌려갔던 이들이나 만주에서 살아가던 민족 구성원들이 귀국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귀국전제민'이란 말이 유행한다.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김만선의 『압록강』, 김동리의 『혈거부족』, 채만식의 유작 『소년은 자란다』, 허준의 『잔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는 비등하던 해방의 감격이 급

속하게 식어버리는데, 이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이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국토의 양단과 미소군정의 실시는 해방의 감격과 근대국가의 설립에 대한 민족의 부푼 꿈을 초조와 두려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당시의 신문지상에는 해방의 감격보다는 돌로 갈린 국토에 대한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거기에서 1946년 3월에 이르면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산업국유화 조치와 토지개혁

은 남한사회에 두 개의 체제로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에 즉한 현실로 대두한다. 남한의 우려와는 달리, 당시 재북작가였던 이기영은 『개벽』을 통해서 해방 직후 북한사회의 토지개혁을 사회주의 개혁의 서막,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표현한다. 아마도 이것은 북한의 문단이 체제문학의 성격을 구비해나가는 도상에서 선명한 이념의 색깔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 설립의 행보 속에, 해방기 현실의 암울함을 피력하는 작품으로는 『잔등』이 단연 돋보인다. 허준(1910~)은 평북 용천 출생의 작가로, 본래 시인으로 등단하였으나 1936년 『탁류』를 발표하며 소설로 전향한 인물이다. 해방 이후 그는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서울시지부 부위원장, 문학대중화운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월북하고 만다. 작가 이병주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훗날 임은(林隱)이란 이름으로 『북조선왕조성립비사-김일성정전(北朝鮮王朝成立秘史 金日成正傳)』(동경, 자유사, 1982)을 일본에서 발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한기』(1938), 『습작실에서』(1941) 같은 작품들은 일제 파시즘이 창궐했던 시기에 억압을 감내해야 했던 지식인의 불안과 참담한 내면 정황을 밀도 있게 묘화한 수작이다.

해방 이후 정치적 격변은 문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문학인들은 좌우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반목을 거치며 남북 체제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북한체제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었던 재북작가들은 월남을 택한다. 월남을 선택한 작가로는 김광식, 김성한, 박연희, 선우휘, 송병수, 안수길, 오상원, 이범선, 이호철, 장용학, 전광용, 정비석, 최인훈, 최태웅, 황순원 등이 있다

『잔등』은 해방 이후 귀국 행로에 나선 화가인 1인칭 서술자를 등장시켜 장춘에서 회령을 거쳐 청진에 이르는 행로를 담은 그의 대표작이다. 화가의 눈을 빌려 보여주는 해방 직후 귀환의 행로는 만연체로 풀려나오며 정밀하게 서술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앞서 거론한 해방 직후의 감격벽이나 감정의 분출과는 전혀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 장춘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화자가 회상하는 주된 내용은 식민지의 기억에서 체험한 민족의 끈고함이다.

화자는 자신의 삼촌이 만주땅 광활한 곳에서 근면과 절약으로 추위와 빈한함을 면한 지금의 삶이 해방과 함께 의지가지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임을 절감하며 귀국을 미루는 모습을 회상하기도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망국민이 되어 유리결식하는 패거리로 전락해버린 일본인들의 행색을 관찰하기도 한다. 화자는 귀국의 행로에서 창 하나로 고기잡이하는 소년의 집중에 찬탄해 마지않는다.

그것은 시대의 격랑과 무관하게 자신의 일에 진력하는 아름다운 상징에 가깝다. 하지만 이 모든 세태의 관찰을 압도할 만한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있다. 그것은 국밥집 노파에 관한 대목이다. 청진역 역전에서 국밥을 파는 노파는 자신의 아들을 화자에게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잃은 사연을 담담하게 토로하면서 늦은 밤까지 초라한 행색의 일본인들에게 아낌없이 국밥을 퍼준다. 할머니의 선행은 아들과 함께 조선독립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힌 어느 일본인 청년을 보고 나서 줄지예 패전국이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파의 한없는 인간애는 국가와 이념을 초극한 지점, 그것들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 본래의 몸짓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이다. 이름 없는 국밥집 노파의 인간애는 혼돈의 해방기 현실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모습인 것이다.

해방 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의 문학

해방 후 5년 만에 벌어진 이 땅의 비극은 남북한 통틀어 300만을 상회하는 수많은 죽음을 불러들였고, 남과 북 모든 지역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이 전쟁은 북한 정권이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일으킨 것이지만, 1953년 7월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체되었을 뿐 대치국면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지만 '계속되는 전쟁 상태'로 여전히 '전쟁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방 이후 민족의 단일국가 체제는 미완의 형국으로 남아 있다.

해방 이후 이 같은 정치적 격변은 문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문학인들은 좌우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반목을 거치며 남북 체제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북한체제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었던 재북작가들은 월남을 택한다. 월남을 선택한 작가로는 김광식, 김성한, 박연희, 선우휘, 송병수, 안수길, 오상원, 이범선, 이호철, 장용학, 전광용, 정비석, 최인훈, 최태웅, 황순원 등이며, 시인으로는 구상, 김규동, 김동명, 박남수, 양명문, 극작가로는 오영진, 비평가로는 이철범 등이 있다. 월북한 작가로는 김남천, 김만선, 김소엽, 김영석, 김학철, 박노갑, 박승규, 박찬모, 박태원, 안희남, 엄홍섭, 이동규, 이태준, 지하련, 현덕, 홍구, 홍명희, 시인으로는 김광현, 김상훈, 박세영, 박아지, 오장환, 이용악, 이병철, 임학수, 임화, 조영출, 조운, 극작가로는 김태진, 박영호, 송영, 신고송, 이서향, 비평가로는 안막, 윤규섭, 임화, 한효 등이 있다. 북에 남은 문인으로는 김조규, 민병균, 박팔양, 백석, 안용만, 이찬(이상 시인), 김사량, 유헌림, 이기영, 이북명, 천세봉, 최명익, 한설야, 황건(이상 작가), 남궁만(극작가), 비평가로는 안함광, 엄호석, 한식 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은 비록 역사의 과오는 있었으나 근대문

학을 개척한 술한 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근대소설을 개척한 이광수, 근대시의 토대를 마련한 정지용과 김동환, 모더니즘의 이론가이자 시인이었던 김기림 등 중견문인들은 피납당했고 김동인과 김영랑은 전쟁의 참담함 속에 죽어갔다. 북한에서도 중군단의 일원으로 나섰던 김사랑은 원주 인근에서 심장병으로 죽었고, 이동규는 폭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인들의 피납과 월북, 죽음은 그대로 한국 근대문학의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의 문학은 이 같은 공경 속에서도 문화적 토대를 쌓는 과업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한 과업의 수행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허준의 『잔등』에서 제시된 사회의 날카로운 관찰과 전망을 일구는 일과 다르지 않는 작업이었으며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새기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기나긴 대립과 갈등의 역사

문학이 사회에 제시하는 문화적 실천은 국가의 공공 기억과 같이 거창한 일은 아니다. 그 실천의 대부분은, 공공의 기억에서는 발언될 수 없는 사적인 개인의 영역의 활성화로 모아진다. 문학의 실천은 역사의 공공 영역에서는 발언될 수 없고 잊혀진 수많은 원혼들을 초치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기억 소생술은 공공기억의 매끄러운 정치의 영역에서는 지나쳐버릴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실천이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은, 그 실천이 역사에서는 자리잡지 못한 이름 없는 삶을 통해서 인간이 지녀야 할 삶의 아름다운 무게와 질을 다시 한번 따지며 살아남은 자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기 때문이다.

최인훈은 자신의 문학적 총결산인 『화두』에서 자전적인 술회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염원했고, 황석영은 해방



〈2005 세계평화축전-DMZ를 넘어〉가 열리는 평화누리공원모습

직후 북한사회를 다룬 『손님』에서 서양에서 도래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난 동족학살의 광기와 엄청난 비극을 전경화하며 역사의 이름 없는 원혼들에게 천도제를 지낸 바 있다. 작가들이 가진 역사 통찰의 상상력은 이데올로기가 증폭시킨 야수적인 광기와 살육을 비판하고 분단과 전쟁의 흐름을 평화와 상생으로 바꾸려는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문학적 발언은 지금 여기, 탈 이념 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해방 정국의 좌우 대립과 반목이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절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즈음 작가들의 남북한 방문, 평화축전 같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문화적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념의 대립과 갈등, 피의 보복과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의 비극적 역사는 엄청난 시행착오이며 잊어서는 안될 과거의 생체기이다. 무엇이 그토록 동족을 적과 동지로 나누고 비방하고 구타하고 살해하게 했는지, 그 광기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다. 그때를 살았던 이들은 구술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가난한 현실체험을 담아내고 있다. 이영희의 『역정』(1987)과 『대화』(2005), 유중호의 『나

최인훈은 자신의 문학적 총결산인 『화두』에서 자전적인 술회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염원했고, 황석영은 해방 직후 북한사회를 다룬 『손님』에서 서양에서 도래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일어난 동족학살의 광기와 엄청난 비극을 전경화하며 역사의 이름 없는 원혼들에게 천도제를 지낸 바 있다.



16 · 15 공동선언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에 참가한 남북작가들

의 해방전후』(2004), KBS 광복 60주년 특별프로젝트로 마련된 『8·15의 기억-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2005) 등이 근래에 접한 저작들이다. 여기에는 문학이 복원해야 할 기억의 풍부함이 개인의 체험에 담겨 있다. 여기에서 해방은 감격과 혼돈, 혼란과 격랑으로 뒤엉킨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임을 증빙하고 있다.

특히, 『8·15의 기억』에서 한 우익인사는 해방정국을 일러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서 내가 죽느냐 사

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44쪽)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같은 단언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민족의 행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채 세계냉전 체제 안으로 휩쓸려들며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이 되었던 시대의 광기와 대면하게 만든다.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되뇌는 것은 그 당대를 살지 못한 나의 아둔함일지 모른다. 허나, 분명한 것은 해방공간의 현실이 낙관과 새나라 건설의 당위와는 크게 어긋난 채 폭력으로 얼룩진 현실 정치의 비극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각축과 반목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 기나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는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다만, 해방 감년을 맞은 오늘의 이 시점에 남북이 소모적인 적대성을 벗어 던지고 상생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러 모로 반가운 현실이다. 그것은 ‘분단의 시대’를 열었던 지난 해방의 시기를 벗어나 ‘평화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세이자 당위라는 사실의 자각에서 온 것이 분명하므로.